

3년 동안 해커와 공존… 방치된 보안이 만든 최악의 사고

개인정보 잔혹사

〈下〉 SKT

유심카 평문저장·미폐차 등 허술 IMSI·USIM카 등 2600만건 유출 CPO 조직 한계·통지 지연 드러나 30만원 배상조정안 불수락 논란

SK텔레콤 내부망이 3년 넘게 해커에게 잠식된 것도 올해 '개인정보 잔혹사'의 큰 이슈였다.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방치된 사이, 통신코어를 포함한 핵심 시스템이 뚫렸고 수천만 건의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정부 조사 결과 SKT는 유심(USIM) 인증키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8년 전 배포된 취약점 패치조차 적용하지 않는 등 구조적 보안 실패가 누적돼 있었다.

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 조사 결과, SKT 내부망 침투는 2021년 8월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종합하면, 침투한 공격자는 관리자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이 알려진 후인 지난 4월,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계정을 탈취해 코어망 서버에 접속한 뒤, 리눅스 운영체계(OS)의 오래된 취약점을 악용해 최고 관리자 권한(Root)을 획득했다.

이후 해커는 'BPF도어' 등 24종의 악성코드와 웹쉘을 서버 23대에 심어두고 장기간 잠복했다. BPF도어는 3년 전 처음 보고된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안업계는 이를 중국 해커조직 '웨드

멘션(Red Menshen)'의 소행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사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특정 인물의 통화·위치·행동 패턴을 장기 추적하는 고도화된 공격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규모는 막대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총 2695만 7749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 월일, 전화번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

MEI)뿐만 아니라, 유심 복제에 치명적인 인증키(Ki, OPc)까지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IMEI 저장 서버는 감염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2차 정밀 포렌식 결과 통합고객인증 서버(ICAS) 등에서 대규모 유출 흔적이 추가로 확인되며 말을 뒤집었다.

개보위는 SKT의 허술한 보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평문 저장'이었다. SKT는 유심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할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상태로 서버에 저장했다. 경쟁 통신사들이 해당 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해킹의 통로가 된 '더티 카우' 취약점은 2016년 보안 패치가 배포됐음에도 SKT는 사고 발생 시점까지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2022년 유심 복제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SKT의 CPO는 주로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네트워크)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

었다. 사고 인지 후 법정 기한인 72시간 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지연한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SKT는 사태 수습을 위해 임원 수를 30% 감축하고 CEO 직속 '통합보안센터'를 신설하는 등 고강도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인당 30만 원 배상안'에 대해선 불수락 의사를 밝혔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 대상이 전체가입자로 확대되어 최대 7조 원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IT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닌, 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시스템 침투가 아니라, SKT 내부의 오랜 방치와 구조적 결함이총체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리눅스 커널의 '더티 카우' 취약점은 보안 업계에서는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 오래된 구멍"이라며 "통신 코어망 서버에서 이를 8년이나 방치했다는 건 사실상 '해커들에게 들어오라'고 대문을 열어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U+, BC카드 데이터로 '익시오' 고도화

카드결제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
검색 정확도·추천 품질 정교화

LG유플러스는 BC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검색 정확도와 추천 품질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카드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와 BC카드 양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BC카드 본사에서 'BC카드 가맹점 데이터 연계 익시오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LG유플러스는 내년 출시 예정인 '익시오 AI 버서'에 BC카드 데이터를 연동할 계획



3일 서울 종로구 BC카드 본사에서 진행한 협약식에서 최윤호 LG유플러스 AI Agent추진그룹장(상무, 오른쪽)과 오성수 BC카드 데이터사업본부장(상무)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이다. 익시오 AI 버서는 통화 도중 대화 맥락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

보를 AI가 직접 찾고 공유하는 능동형 기능을 갖춘 서비스다.

특히 장소 검색 기능에 BC카드 가맹점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 품질을 한층 정교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통화 중 "용산역 맛집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BC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이 높은 식당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자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BC카드는 전국 55만 개 이상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통해 '잇풀(eat.pl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잇풀은 방문 패턴과 혼잡도 등 실사용 지표를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력을 통해 익시오의 맛집·장소 추천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BC카드 데이터를 시작으로 AI 검색·추천·번호정보 등 익시오의 핵심 기능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네이버 플레이스, 동물병원 실시간 예약

병원별 예약 가능한 시간 한눈에 비교
'진료시간' 조건 필터도 새로 제공

네이버는 플레이스에 등록된 동물병원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예약' 검색 필터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제 '지역명 + 동물병원', '동물병원 네이버예약' 등으로 검색하면 실시간 예약 필터가 제공되며,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진료 가능한 병원 목록과 예약 가능 시간이 바로 노출된다. 플레이스 상세페이지의 흠탭·예약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이미 식당 업종에 적용돼 예약 편의를 높여왔다.

사용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 가능한 병원만 한꺼번에 모아보고, 병원

별 예약 가능한 시간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방문 결정 과정이 크게 줄어든다.

네이버는 동물병원 업종에 '진료시간' 필터도 새로 제공한다. 검색 후 ▲ 24시간 진료 ▲주말 진료 ▲공휴일 진료 등 조건을 선택하거나, '24시간 동물병원'처럼 직접 검색해 해당 병원만 주려 볼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용자의 병원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처럼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처럼 병원별 상세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필터를 통해 진료 중인 병원을 빠르게 찾고 바로 예약까지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KT, AI 개발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GPU 구독서비스 K GPUaaS 제공

KT가 충북대학교 산합협력단 강소 특구 지원센터(이하 충북청주강소특구)에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구독형 서비스 'K GPUaaS'를 제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K GPUaaS는 KT가 확보한 엔비디아의 GPU 'H100'을 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9월 출시됐다. K GPUaaS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인 '인피니밴드'를 바탕으로 GPU 서버 간 지연 없는 통신을 제공해 대규모 분산 학습 환경을 구현한다. 또한 'GPU 가상화 분할' 기술로 하나의 GPU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작업량에 따라 자원을

배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GPU 활용 효율을 높였다.

충북청주강소특구는 충북대가 운영하는 기술 핵심 연구기관으로, 스마트 IT 부품·시스템이 중점 특화 사업이다.

KT는 이곳에 K GPUaaS를 적용해 AI 개발과 학습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 기반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GPU 활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 AI 개발과 사업화 전반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지원한다.

KT는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국내의 다양한 기업과 기업으로 K GPUaaS의 진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됐다. 각 회차 종료 시 크리에이터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용자 1인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선물은 주제에 맞춰 ▲법률편 '액막이 명태 방향제' ▲건강편 '혼합 12곡 2kg' ▲재테크편 '슈퍼골드 머니건' ▲우주과학편 '달 LED 무드등'으로 구성했으며, 당첨자는 채팅방에서 바로 공지된다.

카카오는 최근 '오픈채팅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간 관심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개별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기 대화를 피드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무한스크롤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댓글 기능도 적용돼 대화가 뒤섞이며 흐름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주제에 집중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전문 크리에이터 소통 '올챗상담소' 4회 운영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부담 없이 질문하고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 크리에이터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올챗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챗상담소'는 특정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가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12월 한 달 동안 총 4회 진행되며, 법률·건강·재테크·우주과학 등 관심도가 높은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모든 라이브 채팅은 회차별로 오후 7시에 시작되며, 사전에 개설된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진행된다. 채팅방 링크는 카카오 공식 인스타그램과 캠페인 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됐다. 각 회차 종료 시 크리에이터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용자 1인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선물은 주제에 맞춰 ▲법률편 '액막이 명태 방향제' ▲건강편 '혼합 12곡 2kg' ▲재테크편 '슈퍼골드 머니건' ▲우주과학편 '달 LED 무드등'으로 구성했으며, 당첨자는 채팅방에서 바로 공지된다.

카카오는 최근 '오픈채팅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간 관심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개별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기 대화를 피드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무한스크롤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댓글 기능도 적용돼 대화가 뒤섞이며 흐름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주제에 집중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